▲ 남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놀아라

'역시 국민 가수 김건모.'

3년만에 전국투어를 진행중인 김건모 콘서트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KBS TV '7080 콘서트'에 출연한 김건모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콘서트 중 일부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당초 10개 도시 순회공연을 기획했던 제작사측은 인기에 힘입어 최근 15개 도시로 공연 장소를 확대했다. 전국 투어는 12월 서울 앙코르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2009 김건모 전국 투어 콘서트 Soul groove'는 오는 29일(오후 7시), 30일(오후 6시) 두차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똑같은 공연도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즐거움은 달라진다. 3시간 동안 휘몰아칠 김건모 콘서트를 제대로 즐겨보자.

29·30일 김건모 광주콘서트 100배 즐기기

마음 활짝열면 영혼이 울린다

김건모가 이번 콘서트에서 부르는 곡은 40여곡에 이른다. '국민가수'라는 칭호에 걸맞게 대부분의 노래가 히트곡이라 관객들은 공연이 시작되자 마자 다함께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들기 시작한다.

첫곡 '키스'부터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첫번째 멘트 후 '잠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 '첫인상'이 울려퍼지면 관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춘다.

김건모의 히트곡 가운데는 흥겨운 댄스곡이 많은 터라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데는 제격이다. 함께 소리 지르고, 춤추다 보면 공연 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난다.

▲ 이벤트에 참여해보자

콘서트의 재미 중 하나는 다양한 이벤트다. 이번 공연에서는 부부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혹시 부부끼리 공연을 보러간다면 과감하게 이벤트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추억을 만드는 방법이다. 많은 관객들의 환호속에서 김건모에게 직접 노래 선물을 받고 근사한 선물 보따리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

김건모의 유쾌한 입담 덕에 관객들도 즐겁다. 공연 중간에는 관객들과 함께하는 댄스 스테이지도 있다. 무대 위에 올라가 김건모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신나게 춤을 출수 있다.

▲ 깜짝 게스트에 주목하라

이번 전국 투어에는 김건모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가수들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대구·대전 등에서는 김건모의 서울 예전 선배로 30년 지기인 박미경이 출연했다.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이유같지 않은 이유', '이브의 경고' 등 히트곡을 쏟아내며 열창한 박미경은 콘서트 무대를 달군 또 한명의 주인공이었다. 부산 공연에서는 MBC '일요일일요일밤에'의 오빠밴드가 출연,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다양한 무대연출 또 다른 볼거리

게스트 출연 후 첫번째 무대에서는 최근 타계한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Dangerous'를 춤과 함께 보여준다. '클론'의 구준엽이 연출한 화려한 레이져쇼로 마무리되는 '잘못된 만남'은 관객들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비장의 무기다.

10명의 백댄서와 보여주는 '김건모만의 독특한 춤'과 레게, 펑키, 피아노, 댄스, 발라드 등 다양한 스테이지에서 보여주는 의상도 볼거리다.

티켓 가격 VIP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A석 6만 6천원, B석 5만 5천원. 문의 062-220-0525.1588-0766. www.ticketmaru.co.k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파고… 긋고… 찍는 '색감의 조화'

박구환 초대전…21일부터 시안갤러리

'만개하여'

목판화 소멸기법으로 서정적인 화풍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 박구환씨가 오는 21일~9월10일까지 광주 시안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나뭇결이 주는 투박한 미감과 파스텔톤 색채가 어우러진 신작을 선보인다. 파고, 긋고, 쪼개서 찍어내는 목판화 기법상 화면에 독특한 질감이 살아있고, 화사한 색감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한가로운 마을' 시리즈는 남도의 바닷가 풍경과 어부들의 일상을 조형화한 작품으로, 매화와 목련 등을 묘사한 '피어나다' 연작도 함께 전시한다.

조선대 미술대학 출신이며 뉴욕, 동경, 서울, 광주 등지에서 30여 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현재 한국미협, 그룹 소나무, 광주현대판화가 협회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573-01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람을 닮은 나무 화폭에

정정임 전…22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달빛에 혈관을 비추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화폭에 담고 있는 정정임씨가 오는 22일까지 조선대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정씨는 '생명의 순환과 생성'을 주제로 촘촘하게 나뭇결을 표현한 '자연과 인간' 연작 등을 선보인다.

'자연과 인간' 연작은 사람을 닮은 나무를 그린 작품이며, 다양한 색을 통해 인간의 감정 변화를 담아냈다. 또 씨앗 크기의 조그만 점을 무수히 찍어 사물을 표현한 '자연과 뇌' 등의 작품이 눈에 띈다.

조선대 미술대학 출신으로, '그림으로 쓰는 일기'전 등 4차례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62-230-78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문화계 소식 담았어요

문화 전문 사이트 '문화통' 개설

'지역 문화, 모두 담았습니다."

광주·전남 출신 예술인들의 작품 세계와 대표작들을 검색하고, 다양한 문화소식을 안내하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문화를 사랑하는 지역 기업인 (주)백제(회장 지용현)의 지원을 받아 문화전문 기자 출신 지형원(전 광주일보 편집국장)씨가 발행하는 문화통(www.mtong.kr)은 지역 문화계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 전문 포털 사이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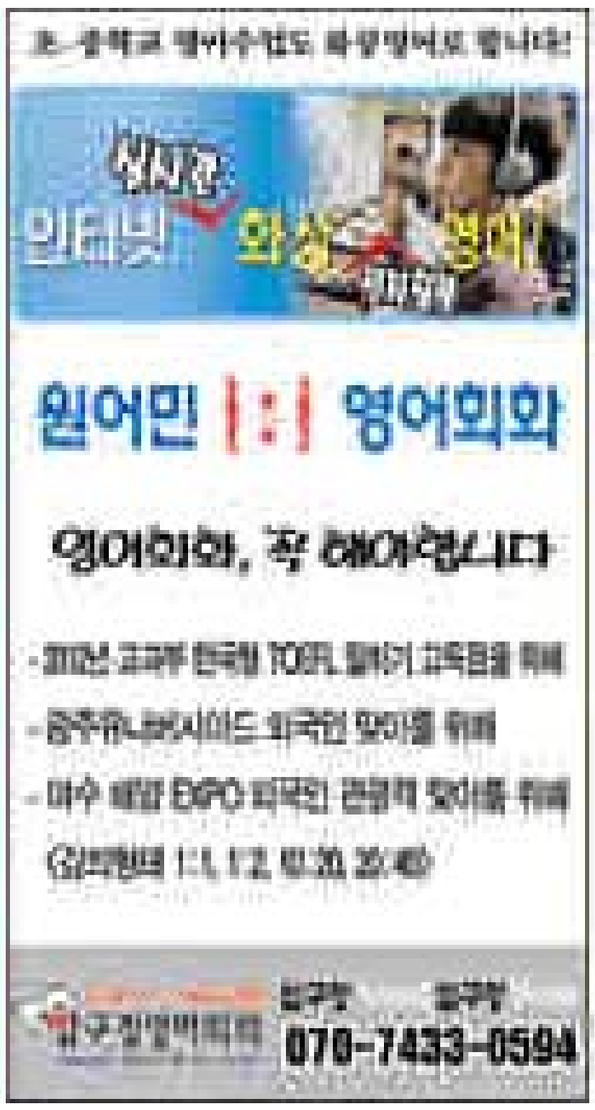
특히 눈에 띄는 코너는 지역 출신 예술가·예술단체 검색 정보다. 17일 현재 허백련·오승윤·차범석·송기숙 등 문학, 미술, 국악, 음악, 연극 분야 280명의 약력과 작품세계, 저서·작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00여개 예술단체도 소개했다.

'문화통'은 또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문화캘린더, 문화전문가들이 쓰는 문화칼럼, 호남의 정자, 남도의 산성, 문화통 집중 인터뷰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다.

그밖에 시·군별 맛집을 소개하는 '전라도 맛집 코너', 월별 향토축제 등도 검색할 수 있다.

'문화통'은 앞으로 지역예술인들과 외국 예술인·단체와의 네트워킹 작업을 진행하며 9월부터는 중요 문화 행사가 있을 경우 오프라인 신문도 발행할 예정이다.

지형원 대표는 "문화통은 문화로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예술인들의 통로"라며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가 문화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226-1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